



3면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82명 시국 선언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음 10월 29일) 제36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전북자치도 핵심사업 추진 '탄력'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 ·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등, 행안부 중투심사 통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관련 핵심사업 등이 11월에 진행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전북은 3건의 사업을 의뢰했고 적정 1건, 조건부 2건으로 100% 통과를 이루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사업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사업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

성화를 주도할 사업들로 주목된다.

특히,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의 경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차전지 핵심사업이다.

2025년 스케일업 펀드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벤처펀드 1조원 결성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및 대기업과 연계한 펀드 결성을 협의 중으로 도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된다.

이차전지 관련 주요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한 최종 절차가 완료돼 본격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북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5일 종합경기장 철거와 함께 해당 부지에 전신복합산업(MICE)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돼 연내 설계 용역에 착수, 전주시 랜드마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도 10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이미 통과되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올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행안부 사전절차를 완료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예상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수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대응전략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다."며,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전북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건강한 출생 '첫걸음'

전북형 저출생 대책... 15개 사업에 총 206억 투입
생계부담 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지원
임신 · 출산 필수 인프라 구축, 난임부부 지원 확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gh 프로젝트'를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자치도가 '건강한 출생'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을 저하와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고령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까지 출생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15개 사업에 총 206억 원이 투입된다.

▲생업과 출산을 함께 금융지원
전북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대출과 연 3% 이차보전(3년간)을 지원을 통해 생업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국 최초로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를 지급해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맘 편한 산후 인프라 강화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개선에도 136억원을 투입한다. 동부권(남원)과 서부권(정읍)에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지역 간 보건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도민 누구나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산에 2호로 모아 복합센터를 건립(2026년 8월)하여 결혼·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한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20만원),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90일→100일)해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임산부 임신 응급의료체계 구축
임산부 안전망 강화도 포함된다. 출산취약지역(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개 시군)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인송 교통비를 확대(1인당 58만원→70만원) 지원하고, 응급 상황 시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산부 119 사전 등록제'를 운영한다.

▲아이 희망 난임부부, 임신부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며, 무정자증 등 남성 난임 환자에게도 시술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난임 치료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18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여 200만원, 남 3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태고 및 난임부부 정서안정, 스트레스 개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산립 치유 제공(공립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48만원 상당)도 지원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이번 정책은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출산·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강설 대비 대응태세 만전

완주 제설전진기지 방문

30일까지 많은 눈 예고

전북자치도가 28일 완주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대설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신속하고 철저한 강설 대응에 만전을 기울인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새벽부터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설이 이어지면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완주 제설 전진기지는 용진읍에 위치해 있으며,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완주 제설 전진기지를 포함해 총 19개소의 제설 전진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3,396대의 제설 장비와 2만9,000톤의 제설제, 7천명의 제설 인력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도로 관리 부문에 있어 총 8,361개 노선에 대한 도로 관리주체 및 취약 등급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 취약 구간 62개소(190km)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행정으로 완주군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대설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 예찰과 제설제 사전 살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완주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오는 30일까지 동부지역에 강한 눈이 예고됨에 따라 시군과 함께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고, TV와 라디오,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

설·한파 시 행동요령 등 주민밀착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온이 떨어지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가동돼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진안 등 3개 시군에 대설경보와 남원 등 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 단계를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을 혁신하는 일!



생명·전환산업 혁신

산업을 일으키는 기술개발



지역주력산업 성장

지역에 뿌리내리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가치 확산

평생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확장



동행협력 지역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대학과 함께 지역이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첫걸음! 라이즈(RISE)와 함께 전북이 라이징 합니다.

함께 성장 함께 성공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JB지산학협력단) 063-239-6526